

광주·전남, 지난 6월 역대 가장 더웠다... 광주기상청, 기후특성 보고서

# 평균기온·폭염일수·열대야 일수도 '역대급'

지난 6월 광주·전남 지역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 역대 6월 중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기상청이 펴낸 '2025년 6월 기후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광주·전남 평균 기온은 22.9도로 평년보다 1.4도 높았다.

특히 6월 평균기온은 당초 2024년 6월(22.7도), 2022년 6월(22.6도) 평균 기온을 넘어섬에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

6월29일과 30일에는 하루 평균 기온이 29도로 역대 같은 날 평균기온 중 가장 높았다. 6월 폭염 일수는 0.7일로 역대 기상 관측 사상 3위에 해당한다.

기상청은 남동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주로 불어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열대야도 빨리 찾아왔고 6월 치고는 길었다. 광주와 완도는 기상 관측 사상 열대야가 가장 일찍 관측됐다.

광주는 당초 기록(1990년 6월23일)보다도 5일 가량 이른 올해 6월19일 열대야가 관측됐다. 완도도 6월20일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 종전 기록(2011년 6월23일)을 경신했다.

6월 열대야 일수는 2022년과 같은 1.0



지난 2일 오전 광주 북구 신용근린공원비탈분수에서 광주 북구 국공립아인르숲어린이집 소속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뉴스시스

일로 역대 1위를 차지했다. 역대 2위 기록은 1978·2005·2011년 0.3일이었다.

반면 강수량은 171.4mm, 강수일은 10.1일로 평년 수준(177.0mm·10.2일)과 비슷했다. 지난달 초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

으나, 중순 이후 열대저기압과 제체 전선의 영향으로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렸다.

장마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시작해 평년보다 3~4일 빨랐지만 이달 1일 조기 종료됐다.

합동주 광주기상청장은 "6월 말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남은 여름철 동안 국지적인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기상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 광주, 임신 사전검사 지원 6개월만에 조기 중단

지난해 4400여명, 올해 상반기 7300여명 몰려  
부부→미혼 지원 대상 늘었지만 예산 1억 줄어  
전남도 신청자 수 폭주... 22개 시군 중 9곳 중단

1년짜리 정부 산전검사 사업이 예산 부족 문제로 광주에서 6개월 만에 조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지원 확대 대상이 늘어 신청자는 크게 늘었지만 사업비는 줄면서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는 지난 6월까지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조기 마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임신 사전건강 관리 사업은 남자가 기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 산부인과에서 산전 검사를 받고, 그 비용을 정부와 시, 구가 함께 보전해주는 제도다.

여성은 13만원까지, 남성은 5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부부에서 미혼까지, 생애 1회에서 연령별로 3회까지 지원 폭을 늘리면서 신청자 수가 대폭 늘었다.

광주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7356명이 관련 사업 지원 신청을 했다. 지난해 4481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2875명이 증가했다.

구별로 적게는 200명, 많게는 2000명까지 지원자 수가 늘었다.

지원자 수는 늘었지만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적게 편성됐다.

지난해의 경우 사업에 6억1400여만원이 투입된 반면 올해의 경우 지난해 예산 소진을 다하지 못해 지원이 줄면서 5억1400여만원이 투입됐다.

일부 구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환급이 내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수요를 적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에서도 관련 사업이 22개 시군 중 9개 시군(목포·여수·곡성·구례·화순·영암·무안·보성·영광)에서 지난 6월 초 조기 마감됐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9000여 만원이 증가한 4억8100만원이 투입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 상반기에만 1000명 가량 신청자수가 늘면서 올해 총 3400명이 지원 신청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원 폭이 넓어지고, 사업이 임소상을 타면서 신청자 수가 급증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관련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 전남서 진드기 물린 80대 치료 중 사망... 호남권 올해 14명 감염

전남지역에서 진드기에 물린 80대 여성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돼 숨졌다.

올해 첫 사망사례이며 5월 이후 진드기 물림에 의한 감염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일 호남권질병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광주와 전남·전북·제주지역에서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된 환자는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환자는 대부분 5월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여성이 최근 사망했다. 이 여성은 임신물

## 5월 이후 크게증가... 농업·임업·축산업 대부분 긴 옷 착용·세탁... 증상 나타나면 곧바로 치료

채취과정에서 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 근육통 증상이 있었으며 의료기관 치료 중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호남권에서 발생한 환자 29명의 감염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두 풀이 무성한 환경에서 활동했다.

농업·임업·축산업 관련이 23건(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작업 4건(13.8%) 순이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58.6%를 차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는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호남권은 371명으로 18%를 차지했다.

또 호남권 사망자는 74명으로 전국 평균 18.5%보다 높은 20%를 기록했다.

호남권은 농업 활동의 규모가 크고 수풀과 산림에 인접한 거주환경, 인구의 비중이 높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위험

이 높다.

이에 따라 농작업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소매의 작업복,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바지는 양말 안으로 넣고 풀밭에 앉을 때는 돛자리를 사용하며 풀 위에 옷을 벗어놓지 않으며 등산로를 벗어난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귀가 후에는 착용했던 옷을 뒤 세탁하고 몸에 물린 상처가 있는 확인해야 하며 의심 증상 나타나면 곧바로 진료를 받고 신고해야 한다.

윤정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료제·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외활동을 할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10대 후배에게 금은방 절도 행각을 지시한 20대 고향 선배가 2개월여 도피 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광주 북구 우산동 한 금은방에서 10대 B군이 벌인 절도 행

## 10대 후배에게 금은방 털이 시킨 20대 선배 구속

각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깨고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6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검

거됐다. 귀금속은 모두 회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전남지역 고향 선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B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현근 기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소재를 파악,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송현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미래교육 설명회 30일 개최

## 학부모·시민 선착순 70명 참여 가능

광주시교육청 시민협력진흥원은 오는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교육 중점사업 설명회 '시민이 묻고, 광주교육이 답하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까지 시민 관심도가 높은 진로진학, 미래융합교육, 생활교육, 국제교육 등 4개 주제를 선정해 진행한다. 설명회는 시교육청 담당자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광주교육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관련 제안을 받는 등 교육주체 간 직접 소통에 방점을 뒀다.

첫 행사는 오는 30일 오후 4시 시민협력진흥원 소강당에서 '광주교육 고입, 대입에 대해 답하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진학팀 정훈탁 장학관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 지원

등 진학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의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광주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시민 등 선착순 70명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외 8월 미래융합교육(수학, 과학, AI 교육 등), 9월 생활교육(생활교육, 학교폭력, Wee프로젝트 등), 10월 국제교육(외국어교육,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다문화 등) 등 순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시민 의견을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광주교육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상생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